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판별변인 분석*

한 세 영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이 사 라²⁾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대와 자살생각 경험유형에 따라 정서, 자아, 학교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의 정서, 자아, 학교변인 중 학대와 자살생각 경험유형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변인은 무엇이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 1패널 4차년도 자료에 해당되며 자료조사 당시 고2였던 2,10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대경험 상하와 자살생각 유무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생성하였고, 집단판별의 예측변인으로 정서문제(공격성,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관련변수(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주요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대경험을 하고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 학대경험을 하지 않고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 네 집단 중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밝혔고, 이러한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는 변수가 정서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자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증재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개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자살생각, 학대경험, 정서문제, 자아, 학교적응

* 본 논문은 2016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부교수 (E-mail: sararose@sjcu.ac.kr)

I. 서 론

한국사회는 경제,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빠른 성장은 가난과 비민주적인 전통을 변화시키고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다가가는 발판을 만들며 선거를 통한 정치적인 참여가 가능해진 반면, 상대적 박탈감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극도의 사회적 피로감도 동반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많은 변화 중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자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만 10-19세)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15.7.31.), 자살생각을 해봤던 청소년 5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6.1.18.). 이와 함께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빈번하게 뉴스를 통해 보도된바 있는데, 칠곡 의붓딸 사망사건(2013년 8월), 인천 11세 학대 소녀 탈출사건(2015년 12월), 부천 초등학교 토막살인사건(2016년 1월), 평택실종아동 압매장사건(2016년 3월) 등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학대와 자살의 상관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은 후기청소년기 또는 성인초기 자살시도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었고(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또래, 부모, 성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일수록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et al., 2002). 국내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로부터의 신체 학대경험은 청소년 자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김재엽, 장용언, 이승준, 2013;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 2005).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에게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강력한 부정적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모든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하지는 않으며, 같은 상황에서 어떤 청소년은 자살 또는 자살생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다른 청소년은 자살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학대가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홍나미, 2012)에 따르면, 학대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스스로 지각하는 대인관계내재화를 통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대환경은 개인적인 의지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지만, 대인관계 내재화와 같은 정서적, 인지적인 요인에 따라 어느 정도 자살생각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아동기 학대유무경험이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Horowitz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아동의 타고난 특성은 환경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타

고난 탄력성 또는 회복력과 환경의 양호성 정도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큰 아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발달할 수 있는 한편, 취약성을 타고난 아동도 좋은 환경에서는 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 유무가 청소년기 자살생각 유무의 상관관계에서는 청소년 개인이 가진 취약성이나 탄력성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대라는 유해한 환경의 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라는 역기능적 발달결과의 유무의 조합과, 그 조합에서 개인의 취약성 및 회복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학대경험이라는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취약 또는 회복력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는 그 중 정서, 학교적응, 자아관련 변인에 주목하였다. 우선, 청소년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아를 완성시켜가는 단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고 쉽게 우울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취약한 단계이다. 실제 청소년 자살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정신 질환이 8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서상범, 2011; Reifman & Wandle, 1995; Waldrop et al., 2007).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평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사회적인 위축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살생각과 직접적인 상관 또는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함을 보였다(김희양, 양경화, 2013; 박병금, 2007; Ayyash-Abdo, 2002). 이처럼 정서 상태는 청소년기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인들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우울감

으로 인한 공격적인 반응에 대해 반향으로 여기거나 부정적 시각으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으로 인해 청소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김재인, 2015).

또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청소년의 생활특성상, 학교에서 경험하는 환경 및 대인관계가 청소년에게 보호요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청소년도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나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학교환경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살을 충동적으로 생각하거나 시도될 수 있다(홍나미, 정영순, 1999).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과도한 경쟁과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며(최준영, 2008),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Flannery, Wester & Singer, 2004),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uld, King, & Greenwald, 1998). 또래나 성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부모 학대경험으로부터 더 취약하여 자살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한 연구결과도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알려준다(Johnson et al., 2002). 이와 더불어 또래로부터의 낮은 친밀감과 높은 거절감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심각한 자살생각을 가졌다는 연구결과(Catterson & Hunter, 2010), 친구들과의 문제가 청소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의미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아관련 변인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을 유추할 수 있는 변수이다. 자아는 자신을 가치로운 개인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수용여부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완성의 중요한 시기로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 장애를 보일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김정숙, 임영미, 2002; King et al., 2001)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와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완충효과를 보이는 변인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밝혔고(장선희, 이미애, 2010), Garmezy(1971)의 연구에서는 자아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가정의 응집력,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서의 보호요소가 지지기반으로 작용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지지체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나 확대된 자아로서의 외부적 지지체계의 존재유무 즉, 공동체 의식 등은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인, 2015; Bernt, Kalas, & Edelbrock, 1986).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학교, 사회가 협력해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사회적인 보

호망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에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는 청소년의 자아, 정서상태, 학교환경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여부에 따라 청소년 자살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청소년의 정서, 자아, 학교변인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개입을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대, 자살생각 경험유형에 따른 정서, 자아, 학교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정서, 자아, 학교변인에서 학대, 자살생각 경험유형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변인은 무엇이며, 또한 학대, 자살생각 경험유형을 판별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의 중 2패널 4차년도 자료에 해당되는 2,10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 중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매년(2010~2016년까지 계획)

학교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조사당시의 연구대상의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아가 1,075명(45.7%), 여아가 1,033명(43.9%)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44.9%, 전문대 및 대졸 50.4%, 대학원졸이 4.7%,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56.9%, 전문대 및 대졸 41.5%, 대학원졸 1.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학대와 자살생각

학대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두 변수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에 해당되는 4문항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묻는 1문항을 사용하였다(허묘연, 2000).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등의 문항이 학대에 해당되며, 자살생각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는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학대경험에 따른 자살생각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학대경험을 평균이상과 평균미만으로

나누고, 자살생각은 하는 집단과 안하는 집단 즉, 유무로 나누어 4집단을 생성하여 편의상 “학대 有. 자살생각 有”, “학대 有. 자살생각 無”, “학대 無. 자살생각 有”, “학대 無. 자살생각 無”로 명명하였다.

정서문제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하위변인인 공격성 6문항, 주의집중 7문항, 신체증상 8문항을 사용하였고(조봉환, 임경희, 2003), 사회적 위축 8문항을 사용하였다(김선희, 김경연, 1998). 패널데이터에는 우울이 정서문제의 한 하위요인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이 우울의 한 문항이므로, 분석에서 우울은 제외하였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공격성)”,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신체증상)”,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사회적 위축)”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변수는 “매우 그러하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을 잘하며, 공격성이 낮으며, 신체증상이 없으며, 사회적 위축이 더 적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주의집중 .77, 공격성 .79, 신체증상 .82, 사회적 위축 .88 로 나타났다.

학교적응문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은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4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민병수, 1991).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학습활동)”,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교우관계)”, “학교 물건

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학교규칙)”,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교사관계)” 등의 문항이 있다. 각 변수는 “매우 그러하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학교규칙을 잘 못 지키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학습활동 .75, 학교규칙 .76, 교우관계 .62, 교사관계 .81 로 나타났다.

자아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인 공동체의식 4문항(김선희, 김경연, 1998), 자아탄력성 14문항(유성경, 심혜원, 2002), 삶의 만족도 3문항(김신영 등, 2006)을 사용하였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자아탄력성)”, “나는 사는 게 즐겁다(삶의 만족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 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공동체의식)”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변수는 “매우 그러하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공동체의식도 낮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 자아탄력성 .83, 삶의 만족도 .81, 공동체의식 .76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및 집단 간

개별비교를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 변인들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유무집단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과 청소년의 정서문제, 학교적응문제, 자아문제 관련변인의 분포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별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문제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정서문제인 공격성($F = 81.97, p < .001$), 주의집중($F = 37.58, p < .001$), 신체증상($F = 90.65, p < .001$), 사회적 위축($F = 19.25, p < .001$)은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적응에 해당되는 학습활동($F = 20.01, p < .001$), 학교규칙($F = 22.63, p < .001$), 교우관계($F = 11.20, p < .001$), 교사관계($F = 7.15, p < .001$)는 학대경험이 있으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관련 변수중 공동체 의식($F = 10.49, p < .001$)은 학교적응과 마찬가지로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탄력성($F = 5.45, p < .001$)과 삶의 만족도($F = 82.01, p < .001$)는 학대경험이 있고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 집단별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변인의 차이

		학대無. 자살생각無 (n=831)	학대無. 자살생각有 (n=99)	학대有 자살생각無 (n=1,129)	학대有 자살생각有 (n=49)	Wilks' λ	F
		M(SD)	M(SD)	M(SD)	M(SD)		
정서 문제	공격성	2.92(.47)	2.56(.53)	3.17(.51)	2.69(.53)	.897	79.18***
	주의집중	2.69(.45)	2.51(.49)	2.87(.50)	2.57(.47)	.949	37.44***
	신체증상	2.91(.49)	2.38(.48)	3.12(.51)	2.62(.50)	.883	91.90***
	사회적 위축	2.72(.65)	2.36(.65)	2.84(.71)	2.54(.66)	.974	18.65***
학교 적응	학습활동	2.30(.44)	2.38(.55)	2.18(.50)	2.31(.46)	.946	39.48***
	학교규칙	2.15(.47)	2.21(.56)	1.98(.49)	2.09(.47)	.968	22.63***
	교우관계	2.12(.34)	2.23(.38)	2.06(.38)	2.15(.42)	.917	63.01***
	교사관계	2.18(.54)	2.23(.52)	2.07(.61)	2.06(.59)	.990	7.15***
자아	공동체의식	2.08(.49)	2.19(.50)	1.98(.52)	1.96(.57)	.985	10.27***
	자아탄력성	2.22(.39)	2.24(.37)	2.16(.40)	2.31(.36)	.993	5.06**
	삶의 만족도	2.21(.56)	2.84(.60)	2.06(.59)	2.84(.50)	.896	80.75***

주. Wilks' λ 는 집단 내 분산의 비율이므로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에 비해 클수록 0에 가까워지고, F값과는 반대방향임.

** $p < .01$. *** $p < .001$.

2.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을 판별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청소년의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변인이 학대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여부 집단을 판별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한지 살펴보고, 집단을 판별하는데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가정을 검토하였다. 첫째, 독립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인데, 보통 가장 작은 종속변인 집단의 사례수가 20을 넘으면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자료는 이를 충족하고 있다. 둘째, 종속변인의 범주집단들 간에 분산-공분산행렬이 동일해야하는데, 사례수가 많은 경우 정규성 검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판별분석이 정규성에 민감하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서의훈, 2005; 정충영, 최이규, 2009).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사례수를 분석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표본의 크기가 독립변인의 수의 20배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각 종속변수 집단의 범주에 최소 20명 이상의 사례가 필요한데 본 연구의 자료는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2.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값	공통변량(%)	정준상관계수	Wilks' λ	X^2	df	유의확률
1	.250	81.2	.447	.756	579.692	33	< .001
2	.049	15.9	.216	.945	117.498	20	< .001
3	.009	2.9	.094	.991	18.368	9	.031

학대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여부 집단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판별함수 3개가 도출되어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제 1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250이며 제 1판별함수에 의해 총 분산의 81.2%가 설명되었다. 판별함수의 판별력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한 Wilks' λ 에 대한 X^2 검증실시결과, 제 1 판별함수($X^2=579.692$, $df=33$, $p<.001$), 제 2 판별함수($X^2=117.498$, $df=20$, $p<.001$), 제 3 판

별함수($X^2=18.368$, $df=9$, $p<.05$)에 의한 학대경험-자살생각 집단 간의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 각 변인과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행렬 계수를 제시하였다(표 3, 표 4). 제 1판별함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정서문제에서는 신체증상, 공격성,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이며, 학교적응 변인에서는 학습활동, 자아관련변인에서는 삶

표 3.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구조행렬		
	함수1	함수2	함수3
신체증상	-.726*	.111	.263
공격성	-.672*	-.170	-.112
삶의 만족도	.649*	-.478	.184
주의집중	-.454*	-.213	-.219
학습활동	.451*	.332	.319
사회적 위축	-.323*	.082	.240
교우관계	.529	.653*	-.086
학교규칙	.309	.423*	.056
교사관계	.160	.273*	-.168
공동체의식	.209	.217	-.420*
자아탄력성	.163	.055	.251*

* $p < .05$.

표 4. 정준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함수1	함수2	함수3
공격성	-.296	-.123	-.272
주의집중	.026	-.023	-.343
신체증상	-.406	.122	.565
사회적 위축	.040	.176	.299
학습활동	.161	.197	.501
학교규칙	.090	.097	.038
교우관계	.316	.759	-.174
교사관계	-.194	.073	-.246
공동체의식	.042	-.093	-.687
자아탄력성	-.268	.033	.532

의 만족도였다. 제 2 판별함수와 상관이 높은 변인은 학교적응에 속하는 교우관계, 학교규칙, 교사관계였으며, 제 3 판별함수와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아관련변인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이었다.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가 제일 큰 제 1 판별함수가 주로 정서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집단의 구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정서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제시한 Wilks' λ 에 대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함수 1이 함수 2에 비해 고유값과 정준 상관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적합한 판별함수라고 판단된다. 이 제 1 판별함수에서 학대경험-자살생각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큰 변수는 신체증상, 공격성, 삶의 만족도, 주의집중, 학습활동, 사회적 위축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얼마나 신체증상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낮은지, 주의집중이 어떠한지, 학습활동이 어떠한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있는지 등에 따라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이 달라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

각 집단원들의 함수 1에 의한 판별점수의 평균인 집단중심값은 표 5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집단중심값을 통해 집단 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함수 1에 의한 학대경험 있으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의 중심값은 -.381로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이 모두 있는 집단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집단중심값(group centroid)

	집단중심값(group centroid)		
	함수1	함수2	함수3
학대 無, 자살생각 無.	.269	.240	.025
학대 無, 자살생각 有	1.568	-.406	-.249
학대 有, 자살생각 無.	-.381	-.110	-.017
학대 有, 자살생각 有	1.093	-.728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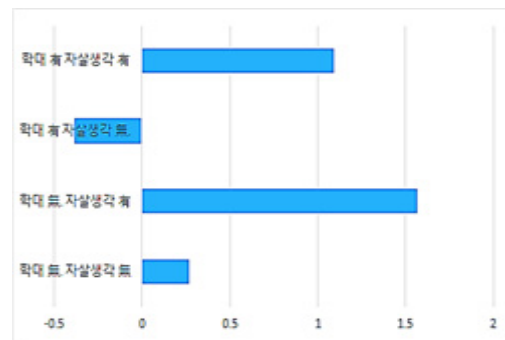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중심값의 비교

그림 2는 학대경험-자살생각 집단 전체에 대한 제 1, 제 2판별점수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으로, 함수 1이 함수 2보다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함수 1을 고려해 해석하면, 학대경험이 있으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은 제 1축인 가로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세 집단이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어, 크게 학대경험이 있으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머지 세 집단은 11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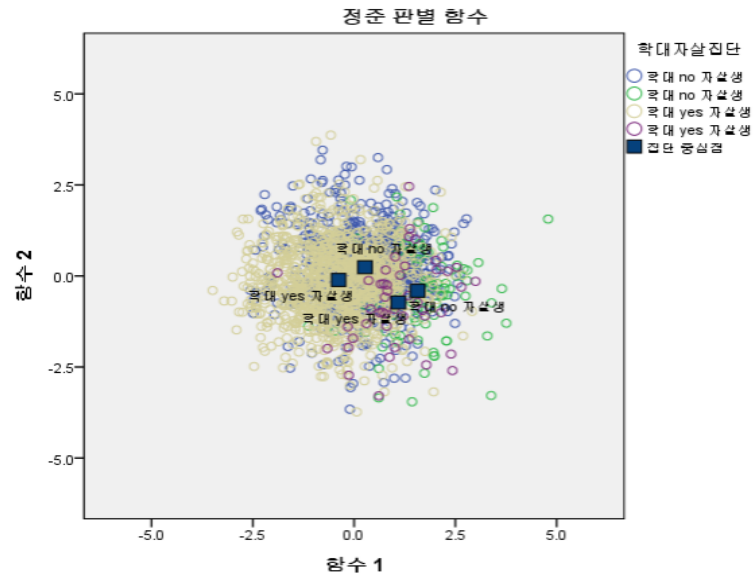


그림 2. 학대경험-자살생각의 네 집단에 대한 산점도

독립변인에 의한 특성이 유사한 집단으로 학대경험이 있으나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차별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분류함수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여부에 따른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분류정확도는 55.6%로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대경험이 없고 자살생각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이를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는 819 명 중의 388명으로

표 6. 집단분류 결과표 $n(\%)$

(N = 2,108)

실제집단	예측소속집단				N(%)
	학대 無. 자살생각 無.	학대 無. 자살생각 有	학대 有 자살생각 無.	학대 有 자살생각 有	전체
학대 無. 자살생각 無.	388(47.4%)	96(11.7%)	231(27.0%)	114(13.9%)	819(100%)
학대 無. 자살생각 有	12(12.2%)	53(54.1%)	3(3.1%)	30(30.6%)	98(100%)
학대 有 자살생각 無.	292(26.2%)	71(6.4%)	634(56.8%)	119(10.7%)	1,116(100%)
학대 有 자살생각 有	5(10.6%)	10(21.3%)	3(6.4%)	29(61.7%)	47(100%)

주. 분류정확도: 53.1%

로 47.4%이지만 이들을 나머지 세 집단으로 잘못 판별할 경우는 52.6%이다. 학대경험이 없으나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은 54.1%가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45.9%는 나머지 세 집단 중의 하나로 잘못 분류된 경우다. 학대경험이 있으나 자살생각은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56.8%의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고, 정확히 분류되지 않아 나머지 세 집단 중의 하나로 잘못 판별할 경우는 43.2%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이 있고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은 이를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는 61.7%이지만 나머지 세 집단 중 하나로 잘못 판별할 경우는 38.3%이다. 전체적으로는 53.1%가 실제 집단에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별로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집단을 구별해주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에 따른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학대 有. 자살생각 有” 집단과 “학대 無. 자살생각 無”집단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학대 有. 자살생각 有”집단과 “학대 無. 자살생각 有”집단, 즉 자살생각을 한 집단끼리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대 有. 자살생

각 無”집단과 “학대 無. 자살생각 有”집단 사이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문제인 공격성, 신체증상, 주의집중문제, 사회적 위축의 경우 “학대 無. 자살생각 有”집단에서 가장 높고, “학대 有. 자살생각 無”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학교적응 변수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자아관련변수인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학대 有. 자살생각 無”집단에서 가장 높고, “학대 無. 자살생각 有”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대 有. 자살생각 有” 집단과 “학대 無. 자살생각 無”집단에서 정서, 학교적응, 자아관련 변인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대경험이 자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Suzanne S., Margaret, R., Richard, F., & Daisy, N., 2007), 학대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의 감소(Amy & Peter, 2009; Victor & Delores, 2005)와 더불어, 생애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Brezo et al., 2008)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학대받은 경험은 자살생각을 하게끔 하는 위험요소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고,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은 정서문제나 학교적응,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나타내 주었다.

또한, 학대경험이 있고 자살생각은 하지 않는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는데 자살생각을 한 집단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Masten(2001)이 제시한 적응유연성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적응유연성은 몇

몇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고위험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이다. 즉, 동일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을 한 집단에서 정서문제는 높게 나타났고 학대경험이 있어도 자살생각을 하지 않았던 집단에서는 정서문제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적응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삶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양식이 달라짐을 시사하며,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로 낮은 정서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또한 암시한다. 또한, 학교적응 변수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자아관련변수인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학대경험이 있고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대경험은 없는데 자살생각은 있는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학대경험을 극복하는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s)로서의 학교적응과 자아관련변인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가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발달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보호적 적응기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기제를 적극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이 청소년이 경험하는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살문제를 예방하는 기제를 찾기 위한

발전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여부에 따른 집단을 판별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히 학대-자살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큰 제 1 판별함수에서 함수값이 $\pm .40$ 이상인 변인을 살펴보면, 신체증상, 공격성, 삶의 만족도, 주의집중, 학습활동, 그리고 그 외 사회적 위축이 있어, 학대경험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회복력 또는 학대경험의 적음에도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취약성은 학교적응이나 자아관련 변수보다는 정서문제의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위험성을 사정하는데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정서문제라는 점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정영주, 정영숙, 2007, Brent et al., 1993), 부적응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험 요소에 노출될 때 그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정서적 요소라고 밝힌 연구와도 일치한다(Lazarus, 2000). 이는 인간의 삶의 역경이 자살까지 생각하게끔 만들더라도 그 가운데 강인한 정신과 긍정적인 정서들이 복합적으로 기능하여 오히려 기존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보다 적응적인 형태로 발달시킬 수 있는 정서적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에서 주요 강화목표로 삼아야 할 보호요인이 정서적인 영역임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셋째, 정서문제, 학교적응, 자아관련변수는 4집단의 분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특

히 4집단 간의 제 1판별함수에 의한 집단중심값의 비교를 통해 집단 간 거리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집단중심값을 통해 집단 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대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의 거리가 가장 멀고,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이 모두 있는 집단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경험여부를 떠나 현재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두 집단은 그 취약성의 측면에서 유사하여 집단 간의 거리가 가까우며, 이들 두 집단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집단은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위험요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가진 집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Horowitz가 제시하는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Horowitz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은 개인 간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여 발달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발달은 제공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이 동일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기 보다는, 개인의 회복력 범위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대경험이 자살생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대경험은 청소년을 자살생각의 위험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본 연구결과의 함의

는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이와 더불어, 선명하게 예측되는 결과인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자살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며, 또한 결과적으로 학대경험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살생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인이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 회복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학교나 상담현장에서는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자살생각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 조사가 지닌 조사 대상자의 탈락(attrition)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즉,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샘플이 작아질 수 있고, 또한 탈락한 케이스와 탈락하지 않은 케이스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해 샘플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연구대상이 아니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험요소의 경험여부가 적응적 결과 또는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개인의 회복력과 취약성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학대라는 위험요소의 경험여부와 자살생각이라는 부적응적 결과의 경험을 기준으로 회복

력이 강한 집단과 취약성이 강한 집단의 분포를 알아보고 그러한 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인 변수들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건강한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음에도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크고, 이 차이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가 정서문제라는 점을 밝혔기에, 자살생각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6.1.18.). 자살 고민 청소년 5명 1명은 실제 시도...가족·친구는 못 막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65130&code=61121111&sid1=hea_2 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김재엽, 장용언, 이승준 (2013).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5, 157-183.
- 김재인 (2015).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 임영미 (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우울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1(1), 19-32.
- 김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 539-554.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 경 (2005). 여고생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여성건강, 18(1), 1-22.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 서상범 (2011). 청소년 자살요인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8(1), 83-102.
- 서울신문 (2015.7.31.). "10대 여학생 또래 관계 중시...쉽게 자살 충동". http://www.kahtd.or.kr/journal_31.php에서 2016년 4월 23일 인출
- 서의훈 (2005). SPSS 통계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

- 의 심리적 보호요인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장선희, 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충영, 최이규 (2009).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준영 (2008).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 충동 간의 관계. 사회연구, 16(2), 211-23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나미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 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 홍나미, 정영순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영향요인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1), 449-473.
- Amy, M., & Peter, M. G. (2009). Differences i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t*, 39, 233-242.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39(4): 459-475.
- Bernt, D. A., Kalas. R., & Edelbrock. C.,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 Baugher, M.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32, 521-529.
- Brezo, J., Paris, J., Vitaro, F., Hébert, M., Tremblay, R. E., & Turecki, G. (2008). Predicting suicide attempts in young adults with histories of childhood abus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2), 134-139.
- Catterson, J., & Hunter, S. C. (2010). Cognitive mediators of th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on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403-416.
- Flannery, D. J., Wester, K. L., & Singer, M. I. (2004).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ion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131-143.
- Garn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Journal of American*

- Academy of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Gould, M. S., King, R., & Greenwald, S. (1998).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7, 915-923.
- Johnson, J. G., Cohen, P., Gould, M. S., Kasen, S., Brown, J., & Brook, J. S. (2002). Childhood adversi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risk for suicide attempts during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 741-749.
- King, R. A., Schwab-Stones, M., Flisher, A. J., Greenwald, S., Kramer, R. A., Goodman, S. H., . . . Gould, M. S.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837-846.
-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5-673.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Reifman, A., & Wandle, M., (1995).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3). 329-354.
- Suzanne S., Margaret, R., Richard, F., & Daisy, N. (2007).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ssociations with preadolescent physical abuse and selec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7), 859-866.
- Victor, W., & Delores, E.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40(175), 33-45.
- Waldrop, A. E., Hanson, R. F., Resnick, H. S., Kilpatrick, D. G., Naugle, A. E., & Saunders, B. E., (2007). Risk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among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Implication for prevention. *Journal of Trauma Stress*, 20(5), 869-879.

1 차원고접수 : 2016. 07. 11.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Discriminant Analysis of Abuse and Suicidal Ideation Groups among Adolescents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Lee, Sarah

Dept. of Child & Family Counseling
Sejo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scriminant factors for abuse and suicidal ideations groups among adolescents. For the purpose, emotional problems including aggression, attention, physical problem, social withdrawn, self- related variables including community spirit, self resilience, and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s including learning activities, school rule, peer relationships, teacher relationships have been examined their contribution to discriminate the 4 groups of abuse and suicidal ideation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data of 4th wave were used to analyzed 2108 of 2nd graders in high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 suicidal ideation group with abuse history appeared being most far away from suicidal ideation group with no abuse history which turned out to be the most vulnerable group. Second, the most strong predictors were turned out to be emotional problems including physical problem, attention problem, well-being, learning activities, and social withdrawn. Implications from the difference among abuse and suicidal ideation groups are discussed.

Keywords: suicidal ideation, abuse, emotional problem, self, school adjustment